

벤처기업 2題

소독 효과 한달간 유지 초경량 균 차단 마스크

‘타다 금지법’ 국회 통과 벤처업계, 개탄 목소리

국내 기술로 코로나19와 맞서는 기업들

바이러스 파이터 예방·방역 2개 솔루션
예방 시공으로 바이러스표면 착상 막아

볼트크리에이션 통기성 높은 마스크
투명 제작 가능... 균 차단 제품 출시 앞뒤

글로벌텍 화상회의 솔루션 ‘아이씨유씨’
재난상황 해제 때까지 한시적 무료제공



한 병원에서 볼트크리에이션의 ‘바이러스 파이터’를 이용해 방역을 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과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를 내놓고 있는 벤처기업들이 관심이다.

5일 벤처기업협회 등 관련업계에 따르면 벤처기업 스테라피가 선보인 감염관리 전문브랜드 ‘바이러스 파이터’는 최대 1개월간 살균효과를 유지시켜 다중이용시설, 사무실, 대중교통 등의 소독에 제격이다.

바이러스 파이터의 방역서비스는 예방과 방역으로 나뉘며 예방 솔루션은 공간소독과 항균소독으로 각각 구분된다. 특히 항균소독은 예방 시공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공간 표면에 착상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다. 직접적인 비말감염보다는 간접접촉에 의한 감염이 우려되는 사업장에 도움이 되는 서비스다. 인체에 무해한 항균제는 시공 후 마찰에 의해 일부가 손상되지 않는 한 약 1개월 동안 항균력이 유지된다는게 회사측 설명이다.

방역 솔루션은 감염자가 머물러 오염의 의심되는 공간에 적용할 수 있는 더욱 강력한 바이러스 제거 서비스다. 특허받은 DiH 공간멸균 기술로 특정 공간 내 일정 기간 동안 바이러스를 99.9999% 제거할 수 있다.

소·부·장 벤처기업 볼트크리에이션은 가법

고 숨쉬기 편한 미세먼지·꽃가루 차단이 가능한 폴리머 필터 개발에 성공했다. 폴리머 필터는 12마이크로미터(μm) 두께의 폴리에스터 소재에 20μm 이하 미세가공기술을 적용, 얇고 가벼워 통기성이 높고 인체에도 무해하다.

볼트크리에이션 최상준 대표는 “이번 필터 개발 성과를 통해 초경량 투명 미세먼지 마스크 제작도 가능해졌다”면서 “미세먼지뿐 아니라 병원균의 비말감염 차단 기능까지 갖춘 마스크를 제작해 시중에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재택근무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텍은 자사 화상회의 솔루션 ‘아이씨유씨(iseeUsee)’를 재난상황이 해제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무료로 내놔다. 아이씨유씨 화상회의 서비스는 화상 공유, PC 바탕화면 공유, 드론과 스마트폰을 통한 현장 영상 공유, 원격 제어에 이르는 다양한 기능을 갖추고 있다.

글로벌텍 황희석 대표는 “이번 코로나19로 대면 접촉이 힘든 시점에서 경제적 부담 및 활동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업들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무료 공급을 결정했다”면서 “당사의 솔루션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관련 서비스는 기업이나 일반인들이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후세에 ‘모빌리티 혁신법’ 기억될 것”
이재웅 쏘카 대표 “수천명 일자리 잃어
김현미장관·정부, 드라이버 책임져야”



국회가 5일 본회의를 열고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처리한 가운데 벤처·스타트업계에서 이를 개탄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타다’는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신년기자회견에서 “타다 같은 새롭고 혁신적인 영입이 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직접 언급한 모빌리티 서비스이기도 하다.

이날 벤처·스타트업계에 따르면 한글과컴퓨터 창업자인 이찬진 포티스 대표는 국회 본회의에 앞서 전날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아마도 20대 국회가 한 일 중에서 가장 잘한 일 하나를 보고 기실 것”이라고 애둘러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장담하는데 이 개정안은 ‘타다금지법’이 아니고 ‘모빌리티 혁신법’으로 후세에 기억될 것”이라며 “타다는 결코 좌절하고 패배한 것이 아니고 위대한 변화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계기를 만들고,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는 자신의 역할을 어렵고 힘들지만 충실히 해왔고 그것에 대해 정당한 평가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이 모빌리티 혁신법을 기반으로 타다는 카카오모빌리티와 함께 우리나라 모빌리티 혁명을 만드는 주역이 될 것이고 사업적으로도 큰 성공을 거두게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도 ‘타다 금지법’이 전날 법사위를 통과하자 페이스북에

“법원의 타다 합법 판결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수정 없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새로 만들어진 플랫폼 운송사업 역시 제대로 기능할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만약 이번 법안이 이대로 (본회의까지) 통과된다면 합리적인 제도 마련과 운영의 책임을 가진 정부가 하루빨리 모빌리티 혁신이 가능한 방안을 마련해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이재웅 쏘카 대표는 이날 올린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서 “한국에서 사업하다 보면 이런 일도 생기는 것을 이해한다며 미안해하지 말라는 타다 드라이버들의 메시지를 받았다”면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정부는 혁신기업에서 일하는 청년들의 눈물과 자신이 주도한 정책으로 일자리를 잃게 된 수천명의 드라이버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지난 1월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타다” 문제 처럼 신·구 산업간에 사회적 갈등이 생기는 문제들을 아직 풀고 있지 못하는데 그런 문제들을 논의하는 일종의 사회적 타협기구들이 건별로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면서 “기존 택시산업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타다’ 같은 새로운, 혁신적인 영입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이통3사, 코로나19 피해 극복 ‘협력사와 상생’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온라인쇼핑몰 판매대행 참여기업 20일까지 모집

SKT 종합상생방안 자금 1130억
750개 대리점에 인센티브 조기지급

KT 1040억 규모 지원방안 시행
대리점 유통화 지원에 80억 추가

LGU+ 850억 지원책 긴급 시행
동반성장펀드 확대, 총 1050억 운영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에서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구현모 KT 대표이사, 하현회 LG유플러스 대표이사 부회장과 영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해 긴급 간담회를 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국 중소유통망·네트워크 협력사들을 위한 상생방안을 마련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총 1130억원 규모의 종합 상생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코로나19에 따른 판매 감소로 유통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국 750여개 대리점들을 위해 이달 말 지급 예정 인센티브 중 일부인 350억원을 지난 4일 조기 지급했다. 또 유통망의 원활한 운영을 돕기 위한 운영비 40억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특히 피해가 가장 큰 대구·경북 지역 소재 대리점에는 휴대폰 매입대금 결제 기한을 1개월

연장(400억원 규모) 해주고, 매장 운영비 10억원을 추가 지원할 방침이다.

SK텔레콤은 외부 협력사 대상으로 유통성을 제고할 수 있는 상생 방안도 마련했다. 우선 140여개 네트워크 인프라 공사 업체를 대상으로 3월에서 6월까지의 공사 대금 중 일부를 3월 중 조기 지급한다.

KT는 지금까지 총 1040억원의 지원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우선 직접지원 방안으로는 대리점 방문객과 판매량

감소에 직면한 전국 1400여 곳 대리점을 대상으로, 유통자금 확보를 위한 정책지원금 약 80억원을 추가 지급한다. 지난 1일에 발표한 약 50억원 규모 월세 및 영업 정책 지원금까지 합치면 총 130억원 규모다.

금융지원 방안으로는 대리점의 휴대폰 매입 대금 약 241억원에 대한 결제 기한 연장을 실시하고, 약 150억원을 대리점 운영자금 목적으로 지원한다.

KT는 유통망 지원뿐만 아니라 중소

협력업체들을 위한 지원 방안도 마련해 시행한다.

LG유플러스는 이날 850억원 규모의 지원책을 마련해 긴급 시행했다.

우선 중소 협력사 지원을 위해 현재 운용중인 800억원 규모의 동반성장재원 중 500억원 규모의 동반성장펀드를 250억원 늘린 750억원으로 확대해 총 1050억원을 운영한다. 동반성장펀드는 기업은행과 연계해 무이자 예탁금을 재원으로 저리 자금 대여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이와 함께 LG유플러스는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 협력사에 대해서는 납품 대금 조기 지급 결제를 최대 500억원 규모로 실시한다.

한편, 이날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구현모 KT 사장 내정자,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 등 이동통신3사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 회복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동통신사는 위축된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5세대(5G) 이동통신 상반기 투자를 4조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김나인 기자 silkni@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2020년 온라인쇼핑몰(B2C) 판매대행사’ 참여기업을 이달 20일까지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온라인쇼핑몰 판매대행사’는 아마존, 이베이 등 해외 유명 온라인쇼핑몰 상품 등록부터 판매·고객관리까지 온라인수출의 전 과정을 윈스톱 지원하는 사업으로, 인력·비용 등의 문제로 해외 온라인쇼핑몰 입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외진출 희망 기업에게는 글로벌 소비자에게 상품과 브랜드를 손쉽게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올해는 한류지역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SNS, 모바일 실시간 라이브 방송 판매 등 시장별 맞춤형 마케팅을 제공해 지원 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특히 ▲터키, 인도 등 신흥 한류강세 시장은 지역 유명 쇼핑몰내 한국관 개설 및 입점 판매 ▲북미, 중국 등 선진시장은 아마존, 알리바바 등 글로벌 쇼핑몰 판매대행을 각각 지원한다.

/한용수 기자 hys@